

주간 현/선물 수급: 5월 현물 외인 수급과 공매도 점검

심상범 sangbum.sim@miraeasset.com

이벤트 성격의 바스켓 순 매도.
때문에 옵션 만기일 이후 둔화

현물 외인 순 매도 급증은 MSCI 지수 리밸런싱에 대응한 인덱스 펀드 순 매도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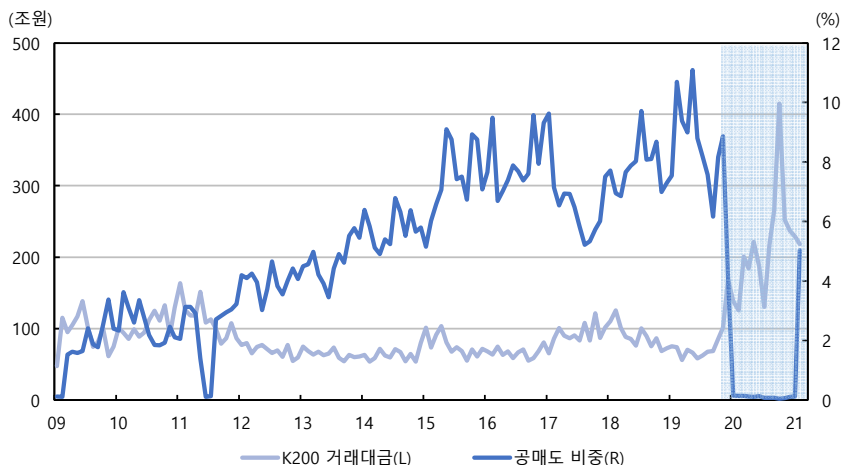
- 5월 현물 외인 순 매도는 -8.5조원으로 사상 두 번째. 옵션 만기일과 직전 이틀간 전체 순 매도의 65%가 집중되었으며 68%는 바스켓(비차익 PR+차익 PR) 주문이었음
- 바스켓 대량 순 매도의 배경은 MSCI 지수 반기 재 조정 때문. 월말에 일괄 조정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재 조정 물량이 워낙 많아서 앞선 옵션 만기일에도 분산 집행한 듯
- 5월 27일, 외인 비차익 PR 매도는 7.2조원으로 사상 최대. 단, 비차익 PR 매수 6.9조원과 내부 상쇄매 지수 낙 폭 미미. 이벤트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후부터 순 매도 완화

외인 중심으로 대차잔고, 공매도
대금, 공매도 잔고 모두 급증

5월 공매도 거래대금은 10.9조원으로 급증. 여기서 77%는 청산, 23%는 잔고로 누적

- 5월 말 대차잔고(K200 지수 기준)는 52.8조원(8.4억주)으로 전월 대비 +22.3% 증가. 섹터는 철강소재, 산업재, 중공업, 건설 및 에너지화학의 잔고 증가 수량이 많았음
- 종목으로는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HMM, LG디스플레이, 한화생명 등 상위 20개가 잔고 증가 수량의 54%를 차지. 대차거래의 68%는 외인이었으며 5백만주 순 차입
- 공매도 대금은 10조 9,644억원. 이는 금지 기간 직전의 1.78배 규모. 단, 지난 해부터 주식 거래대금 급증한 까닭에 주식 대비 비중은 4.76%로 금지 직전의 8.22%에 미달
- 대차잔고 증가에 비례하여 에너지화학, 헬스케어, 산업재, 중공업 및 건설의 공매도가 컸음. 공매도 잔고는 6.7조원으로 증가. 공매도의 22.5%가 누적되고 나머지는 회전
- 공매도 누적 비중 상위 종목은 LG디스플레이, HMM, 두산중공업, 셀트리온, 신풍제약. 배경은 주가 상승에 따른 매도 단가 상향 조정 또는 중/장기적 상대적 하락 베타

주식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4.8%까지 회복. 단, 금지 이전의 8.2%에 미달해 추가로 늘어날 수도



주: 1) 월별 거래대금 합계. K200 지수 기준

2) 공매도 비중 = 공매도 금액 합계/월별 거래대금 합계 X 100(%)

자료: KOSCOM,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5월 현물 외인 수급과 공매도 점검

5월, 현물 외인 사상 두 번째 순 매도. 성분은 비차익 PR, 배경은 인덱스 펀드 재 조정

- 지난 5월, 현물 외인은 KOSPI 시장에서 -8조 5,168억원을 순 매도. 이는 월간 단위로 사상 두 번째 규모. 사상 최대는 지난 해 3월에 기록한 -12조 5,550억원. 모든 주문 유형이 순 매도였으며 성분은 '비차익 PR -5조 4,500억원 > 개별 종목 -2조 7,229억원 > 차익 PR -3,739억원'의 순서. 즉, 프로그램 매매(바스켓 주문)가 전체 순 매도의 68%를 차지[표 1]

- 비차익 PR 순 매도는 5월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급증했는데, 규모는 만기일을 포함한 3일간 -3조 5,129억원. 즉, 월간 순 매도의 64.8%가 집중되었으며 이 때 KOSPI는 -3.91% 하락. 그러나,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는 반대로 +1조 613억원 순 매수. 성분은 비차익 PR +9,947억원, 개별 종목 +696억원. 차익 PR은 순 매도가 이어졌으나 규모는 -30억원에 불과

- 비차익 PR 순 매도의 배경은 국내 증시와 관련된 MSCI 지수의 5월 반기 조정 때문. 일반적으로 인덱스 펀드는 추적 오차를 줄이기 위해 지수가 바뀌는 월말에 재 조정 물량을 전량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에는 예정된 재 조정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경험상 유동성이 집중되는 5월 옵션 만기일에도 일부 물량을 미리 분산 집행한 듯[그림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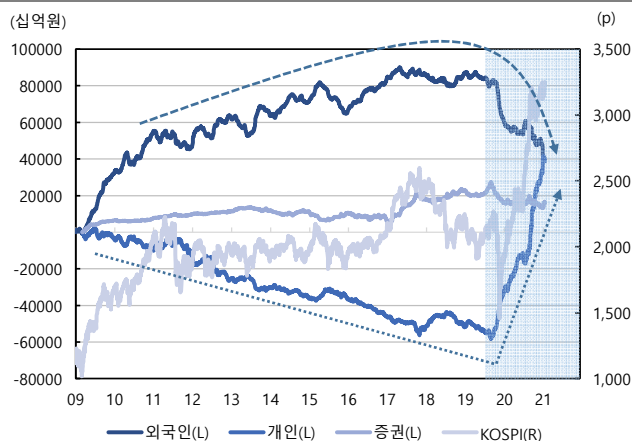
표 1. 현물 외인 월간 순 매도 상위(단위: 억원, %)

년 월	전체	개별 종목	차익 PR	비차익 PR	K200 ETF	지수 등락 폭
2020.03	-125,550	-54,963	-7,080	-63,507	482	-11.69%
2021.05	-85,168	-27,229	-3,739	-54,200	183	1.78%
2010.05	-62,673	-45,383	-13,914	-3,376	-702	-5.76%
2021.01	-52,996	-32,963	-1,262	-18,772	-365	3.58%
2013.06	-50,198	-12,856	-4,676	-32,666	-8,339	-6.88%
2011.08	-46,239	-14,969	-23,519	-7,750	-3,745	-11.86%
2015.08	-41,092	-17,213	-4,781	-19,098	-6,273	-4.37%
2020.04	-41,005	-4,525	-12,135	-24,345	-1,093	10.99%
2018.10	-39,988	-32,361	646	-8,272	200	-13.37%
2020.05	-38,838	-3,947	-3,796	-31,095	1,227	4.21%

주: 전체 순 매도 상위 10개 월, 개별 종목=전체-차익-비차익, K200 ETF는 K200 지수 추종하는 9개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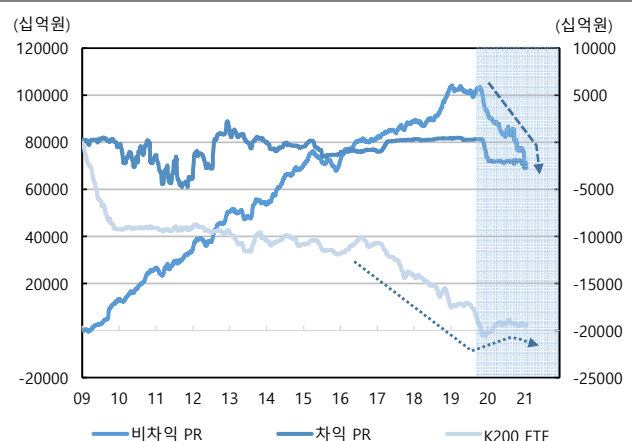
자료: KOSCOM,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 5월 들어 현물 외인 순 매도 다시 증가



주: 2009년 1월 이후 일별 순 매수 단순 누적
자료: KOSCOM,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외인 현물 순 매도의 68%는 바스켓 주문



주: 1) 개별 종목 = 전체 - 차익 PR - 비차익 PR
2) K200 ETF는 K200 지수를 추종하는 8개 ETF 순 매수 합계. 단, TR ETF는 제외
자료: KOSCOM,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실제로 5월 27일, 외인 비차익 PR 매도는 하루에만 7조 1,99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 다만, 비차익 PR 매수도 6조 8,559억원에 달했기 때문에 순 매도는 -3,432억원에 불과했으며 지수 낙 폭도 전일 대비 -0.09%에 그쳐. 이처럼 재 조정 물량이 늘어난 것은 ① 관련 펀드가 크게 늘었거나, ② 펀드 내 국내 증시의 비중이 목표치를 크게 초과했거나, ③ 국내 비중을 하향 조정했다는 뜻¹

5월 공매도 재개되면서 대차잔고 급증. 아직 최대치의 64%이므로 추가 여력 있음

- 5월 31일, 대차잔고(K200 지수 기준)는 8억 4,283만주로 직전 저점(4월 2일, 5억 2,829만주) 대비 +59.5% 증가. 특히, 공매도 재개를 앞둔 4월 말~5월 중순에만 +35% 급증했으며 이후부터는 다소간 증가세 둔화. 사상 최대 잔고는 공매도 금지 직전에 기록한 13억 1,102만주. 따라서, 5월 말 잔고는 최대 잔고의 64.3% 수준이므로 추가로 늘어날 여력 충분
- 금액 기준으로는 한 달 전보다 +9조 6,451억원(+22.3%) 늘어난 52조 8,445억원. 때문에 올해 1월, 최저 1.82%까지 하락했던 대차잔고 비중(K200 지수 시가 총액 대비)은 2.7%까지 회복. 직전 최대 비중은 지난 해 3월 20일에 기록했던 5%였으며, 공매도가 활발했던 2013~2019년의 일 평균 비중은 3.75%였기 때문에 역시 대차 잔고는 추가 증가 가능[그림 2]

섹터 별로는 철강소재, 산업재, 중공업의 대차잔고 수량 급증

- K200 지수의 섹터 별로 한 달간 대차잔고 증감을 살펴보면, 금액 기준으로는 '헬스케어 > 산업재 > 경기소비재 > 정보기술 > 중공업'. 수량 기준으로는 '철강소재 > 산업재 > 중공업 > 건설 > 에너지화학'. 따라서, 정보기술의 잔고 증가 금액이 컸던 것은 시가 총액이 컸던 까닭. 시가 총액 대비 대차잔고 비중이 높은 섹터는 '중공업 > 헬스케어 > 산업재 > 건설 > 에너지화학'[표 2]
- 직전 1년간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가장 컸던 에너지화학(K200 지수 대비 +48.89%p)의 대차잔고 증가가 크지 않았던 점과 반대로 K200 지수 대비 초과 손실(-41.79%p)이 컸던 헬스케어의 대차잔고가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초과 수익이 높은 섹터를 차입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실적 대비 상승 폭이 과다한 업종에 차입 수요가 몰린 듯

표 2. 5월 K200 지수 업종 별 대차 잔고 증감 비교(단위: 억원, 만주)

섹터	시가 총액	잔고	비중	증가 액	잔고 수량	증가 량	증가율
KOSPI200	1,957,231	52,845	2.70%	9,645	84,283	20,953	33.08%
K200정보기술	714,868	14,797	2.07%	1,001	18,034	2,019	12.61%
K200경기소비재	220,231	6,062	2.75%	1,138	8,241	1,952	31.03%
K200커뮤니케이션서비스	201,086	5,588	2.78%	801	4,460	414	10.23%
K200에너지화학	172,558	6,056	3.51%	739	3,761	1,042	38.32%
K200금융	146,166	3,151	2.16%	590	14,199	3,538	33.18%
K200헬스케어	138,148	5,759	4.17%	1,357	3,798	1,030	37.23%
K200생활소비재	131,661	3,213	2.44%	904	3,837	862	28.97%
K200산업재	75,834	2,984	3.93%	1,332	8,080	3,121	62.94%
K200중공업	56,917	2,400	4.22%	977	13,050	4,486	52.38%
K200철강소재	52,444	1,128	2.15%	254	2,138	995	87.13%
K200건설	47,318	1,706	3.61%	552	4,684	1,494	46.84%
합계/평균	1,957,231	52,845	2.70%	9,645	84,283	20,953	

주: 1) 시가 총액, 잔고, 증가액의 단위는 억원, 잔고 수량과 증가 량은 만주

2) 비중=대차 잔고 금액/시가 총액, 증가 액=5월 말 대차 잔고-4월 말 대차 잔고, 증가 율=(5월 말 잔고 수량-4월 수량)/4월 수량

자료: KOSCOM,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¹ 2001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08개 만기일을 살펴보면, 만기일 거래대금은 직전 20일 간 일 평균에 비해 평균적으로 +26.8% 많았음. 표준편차는 24.3%. 거래대금이 늘어난 만기일은 99개, 이 경우에 만기일 거래대금은 직전 20일 평균 대비 +29.9% 증가

종목 별로는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HMM, LG디스플레이의 대차잔고 수량 급증

- 종목 별로는 ‘두산중공업 > 삼성중공업 > HMM > LG디스플레이 > 한화생명’의 대차잔고 수량이 5월 한 달간 +1천만주 이상 증가[표 3]. 전체 순증 수량에서 상위 20개 종목이 54%를 차지. 즉, 일부 종목을 대차잔고 증가 폭이 컸던 셈. 한편, 금액 기준으로는 ‘HMM > 두산중공업 > 셀트리온 > 삼성바이오로직스 > SK하이닉스’의 대차잔고가 급증. 시가 총액이 큰 바이오 종목이 포함된 것

- 차입이 공매도로 이어졌을 때, 주가에 하락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종목은 ① 거래량 대비 대차잔고가 많거나, ② 상장 주식 수 대비 대차잔고가 많은 것. 전자는 ‘동원산업 54.49% > 쿠루홀딩스 54.45% > 포스코케미칼 43.51% > 오뚜기 39.61% > JW중외제약 34.62%’. 후자는 ‘LG디스플레이 13.49% > CJ CGV 13.35% > DL 12.44% > 호텔신라 11.50% > 롯데관광개발 10.34%’²

- 대차잔고 증가 상위 20개의 외인 대여 비중은 평균 67%, 차입 비중은 평균 75.9%. 즉, 외인이 상당 부분을 대여했으며 이것의 대부분을 다른 외인이 차입한 셈. 단, 대차잔고 수량 증가 상위 20개에 포함된 ETF(KODEX 2차전지산업, TIGER 2차전지테마)는 외인이 아니라 증권이 전량 대여하고 다른 증권이 전량 차입한 것으로 모두 LP 활동의 일환

표 3. 대차잔고 증가 랭(수량 기준) 상위 종목(단위: 만주, %)

순위	종목명	잔고	증감	증가율	회전율	거래량 대비	상장주 대비	수익률	외인 비중	
									대여	차입
1	두산중공업	4,139	1,863	81.84	24.69	13.10	9.80	40.64	69.06	54.39
2	삼성중공업	4,899	1,537	45.72	55.93	12.88	7.78	-18.35	76.13	81.71
3	HMM	3,165	1,162	58.00	45.42	6.77	9.16	19.90	70.02	77.07
4	LG디스플레이	4,828	1,075	28.63	44.52	27.12	13.49	-4.95	82.48	91.16
5	한화생명	1,944	1,057	119.16	22.60	6.80	2.24	11.27	74.03	90.13
6	우리금융지주	1,949	991	103.36	30.42	26.90	2.70	3.72	57.33	49.47
7	팬오션	1,462	741	102.74	48.50	7.00	2.74	-5.55	61.09	67.58
8	동국제강	711	555	355.82	24.66	9.38	7.45	-11.92	66.51	73.66
9	NH투자증권	672	438	187.76	13.03	17.31	2.39	7.35	79.84	87.46
10	두산인프라코어	2,325	413	21.60	71.32	16.20	10.30	18.81	73.85	60.64
11	대우건설	901	364	67.94	51.31	6.78	2.17	8.19	65.61	92.24
12	금호타이어	856	360	72.43	20.61	12.90	2.98	28.64	51.82	48.13
13	대한전선	522	334	177.81	1.00	0.41	0.61	77.73	61.46	99.25
14	남선알미늄	786	316	67.09	13.56	6.20	7.14	-5.60	44.88	82.94
15	SK하이닉스	2,542	300	13.38	76.77	13.32	3.49	-2.31	70.52	72.83
16	삼성엔지니어링	810	272	50.41	38.60	6.41	4.13	11.50	70.94	87.98
17	KODEX 2차전지산업	271	271	100.00	2.22	17.08	3.43	-7.01	-	-
18	TIGER 2차전지테마	265	265	100.00	7.02	27.25	5.40	-6.48	-	-
19	현대로템	512	259	102.19	23.48	9.85	4.69	3.67	74.22	94.38
20	한화시스템	493	257	108.75	25.95	24.45	4.47	-1.70	56.08	54.32

주: 1) 잔고는 5월 말 기준이며 단위는 만주, 증감과 증가율은 4월 말 대비

2) 회전율=Min[체결 수량, 상환 수량]/Max[체결 수량, 상환 수량]X100(%)

자료: KOSCOM,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² 단, 실제로 거래량 대비 대차잔고 비중이나 상장 주식 수 대비 대차잔고 비중과 주가 수익률의 관계를 살펴보면 양자 모두 설명력은 거의 없는 편. 물론, ‘대차잔고=공매도’의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탓도 있지만 설명 거래량 중에서 공매도 비중이 많더라도 이것이 주가 하락으로 연결된다는 증거는 찾기 어려움. 경험상 주가 수익률과 가장 관련된 것은 ‘공매도 대비 잔고 증가 비중’[본문의 그림 6]. 일단 진입한 공매도는 주가가 상승할 경우 누적되는 반면, 하락하면 회전하는 경향. 전자는 추가 공매도로 매도 단가를 높이기 위함이며, 후자는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이익 실현을 반복했기 때문

대차거래의 68%는 외인. 외인은 순 차입, 증권과 투신/사모는 순 대여

- 주체 별 대차잔고 통계가 발표되지는 않지만 한 달간 체결 수량의 67.7%가 외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잔고의 상당 부분을 외인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외인은 3억 8,407만주를 차입했는데 이 중에서 최대 87%는 다른 외인으로부터 빌린 것이며 나머지는 증권이나 투신/사모에게 차입한 것. 외인이 순 차입이었던 반면, 증권과 투신/사모는 상대적으로 대여가 많았음[표 4]

표 4. 주체 별 대여/차입 체결 비중(단위: 만주, %)

구분	대여	비중	차입	비중	대여+차입	대여-차입
외국인	33,416	62.96	38,407	72.51	71,824	-4,991
금융투자	14,907	28.09	12,890	24.34	27,797	2,017
투신/사모	4,264	8.04	1,514	2.86	5,778	2,750
국가/지자체	367	0.69	142	0.27	509	225
보험	65	0.12	0	0	65	65
은행	36	0.07	0	0	36	36
개인	13	0.02	13	0.02	26	0
기타 금융	3	0.01	2	0	5	1
합계	53,071	100	52,968	100	106,039	103

주: K200 지수 구성 종목 대상. 주체 별로 5월 체결 수량 합계. 단위는 만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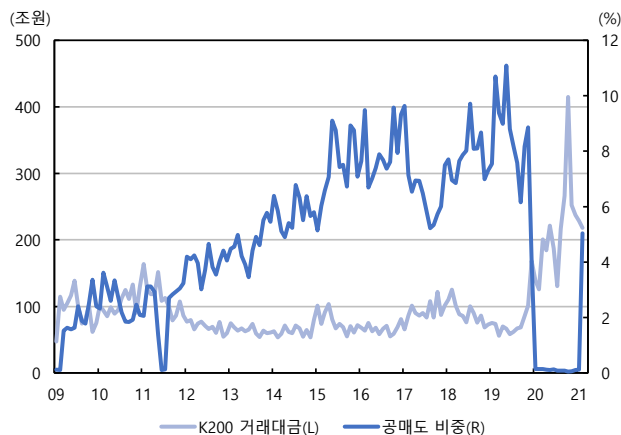
자료: KOSCOM,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5월 공매도 거래대금은 금지 기간 대비 52배, 2020년 3월 이전 대비 1.78배 증가

- 외인이 주식을 차입하는 용도는 다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매도가 주된 목적. 일반적으로 대차잔고가 증가하면 공매도 역시 늘어나는 편. 5월 공매도 규모는 10조 9,644억원(K200 지수 기준)으로 공매도가 금지된 13개월 평균 대비 52배 증가. 또한, 공매도 금지되기 직전인 2019년 3월~2020년 3월의 평균치와 비교하더라도 1.78배에 달해[그림 3]

- 공매도 금지 기간에 주식 거래대금(K200 지수) 대비 공매도 비중은 월 평균 0.11%에 그쳤으나 5월에는 4.76%로 급증. 다만, 2020년 초부터 주식 거래대금이 직전 대비 2.73배나 급증했기 때문에 금지 이전 비중(월 평균 8.22%)에는 미달. 최근에 변동성이 줄면서 거래대금은 감소하기 시작한 반면, 공매도는 당분간 일정 규모를 유지할 것이므로 공매도 비중은 더욱 늘어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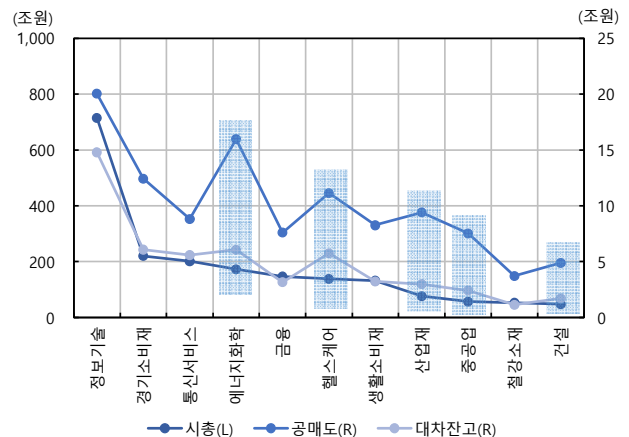
그림 3.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4.76%까지 회복



주: 1) 월별 거래대금과 공매도 비중(=공매도 거래대금/주식 매도 거래대금)
2) K200 지수 기준

자료: KOSCOM,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섹터의 공매도 규모는 대차잔고에 비해



주: 공매도는 대차잔고와의 비교를 위해서 스케일을 10배로 늘린 것. 실제 수치는 1/10
자료: KOSCOM,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시가 총액 대비 공매도 규모는 에너지화학, 헬스케어, 산업재, 중공업, 건설이 많은 편

- 섹터 별로는 ‘정보기술 > 에너지화학 > 경기소비재 > 헬스케어’가 전체 공매도 대금의 54%를 차지. 섹터 별 공매도 규모는 대체로 시가 총액에 비례하는 편이었지만 에너지화학, 헬스케어, 산업재, 중공업 및 건설은 시가 총액에 비해 공매도가 컸음. 이는 앞서 이들의 대차잔고가 시가 총액에 비해 컸던 점과 같은 맥락. 즉, 공매도는 대차잔고에 비례했던 셈[그림 4]

- 한편, 전체 공매도는 대차잔고의 21%에 그쳤지만 대차잔고 증가분(+9조 6,451억원) 보다는 많았음. 이는 늘어난 대차잔고가 대부분 공매도로 이어졌으며 기존 잔고의 일부도 공매도에 참여했다는 뜻. 다만, 산업재와 중공업의 공매도는 대차잔고 증가분의 70%대에 그쳤는데, 이는 다른 용도로 주식을 차입했거나 일단 차입했지만 공매도를 미룬 물량이 있다는 뜻[표 5]

- 섹터 별로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것은 ‘생활소비재 > 에너지화학 > 헬스케어 > 중공업 > 금융’. 다른 요인이 없다면 이 비중이 높을수록 주가 하락 압력 강해져. 물론, 이 비중이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이나 초과 손실 여부를 설명하지는 못했지만($R^2=0.01$), 초과 수익(손실)은 이 비중이 강할 수록 낮았음(높았음)($R^2=0.771\sim0.803$)[그림 5]

표 5. 5월 섹터 별 공매도 거래대금 현황(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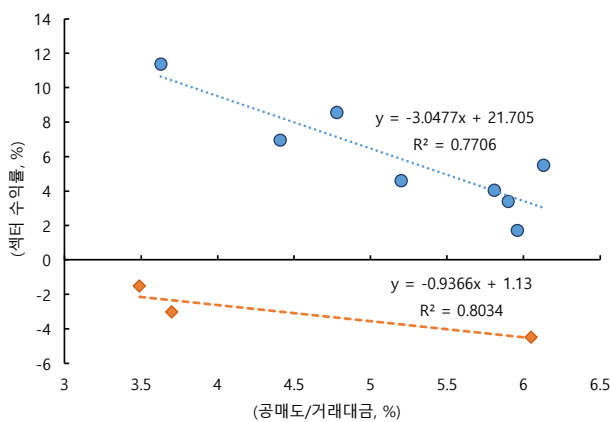
업종	공매도(억원)	거래대금 대비	대차잔고(억원)	잔고 대비	수익률(%)
KOSPI 200	109,785	4.76	528,445	20.78	1.31
K200정보기술	20,048	3.70	147,969	13.55	-3.02
K200경기소비재	12,421	4.78	60,624	20.49	8.56
K200커뮤니케이션서비스	8,819	4.41	55,879	15.78	6.96
K200에너지화학	15,983	6.05	60,559	26.39	-4.48
K200금융	7,598	5.81	31,513	24.11	4.05
K200헬스케어	11,137	5.96	57,586	19.34	1.72
K200생활소비재	8,262	6.13	32,133	25.71	5.50
K200산업재	9,408	3.63	29,835	31.53	11.38
K200중공업	7,532	5.90	24,003	31.38	3.40
K200철강소재	3,699	3.49	11,283	32.78	-1.51
K200건설	4,878	5.20	17,062	28.59	4.61

주: 1) 거래대금 대비 = 섹터 공매도 금액/섹터 주식 거래대금X100(%). 굵은 글씨는 시장 평균(K200 수치)을 상회하는 섹터

2) 대차잔고는 5월 31일 기준, 잔고 대비 = 섹터 공매도 금액/섹터 대차잔고X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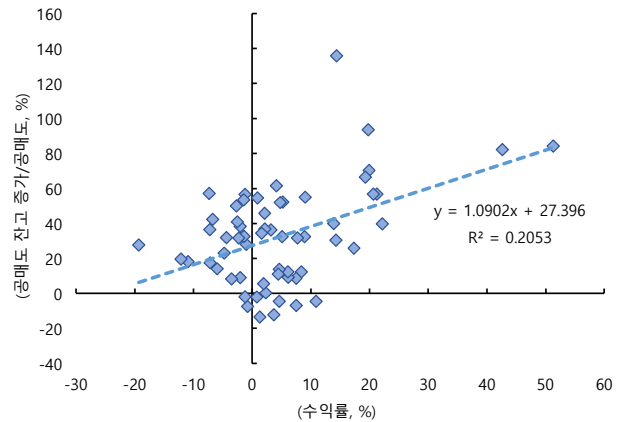
자료: KOSCOM,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공매도 비중 높을수록 초과 손실 확대 또는 초과 수익 축소



주: X축은 섹터 별 공매도 대금/주식 거래대금 비중, Y축은 섹터 지수 수익률
자료: KOSCOM,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약하지만 주가 상승할수록 공매도 잔고 늘어나는 경향



주: 공매도 잔고 증가/공매도는 금액 기준
자료: KOSCOM,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공매도의 23%가 잔고로 누적. 산업재, 철강소재, 건설, 에너지화학, 중공업 잔고 급증

-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공매도 잔고 역시 증가. 단, 증가율은 전월 대비 101%에 그쳤으며 금액으로는 +2조 4,727억원. 대략 공매도 금액의 22.5%가 잔고로 누적되고 나머지는 회전했던 셈. 이처럼 ‘누적’보다 ‘회전’이 많았던 것은 상대 가치(Relative valuation)에 의한 중장기 롱-숏 보다는 통계적 차이거래(Statistical Arbitrage)나 단기 투기 등이 많았다는 증거[표 6]

- 섹터 별로는 ‘산업재 > 철강소재 > 건설 > 에너지화학 > 중공업’의 순서로 잔고 증가율이 높았음. 또한, 공매도 중에서 잔고로 누적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섹터는 ‘중공업 > 건설 > 헬스케어 > 산업재’. 철강소재와 에너지화학은 잔고가 전월 대비 각각 3.8배, 1.3배나 늘었지만 증가량은 공매도 금액의 12.5%, 15.1%에 불과. 주가가 하락하면서 일부가 조기 이익 실현에 나선 탓

표 6. 5월 섹터 별 공매도 잔고 현황(단위: 만주, %, 억원)

업종	수량	증가	증가율	금액	증가	공매도	대차잔고	시가총액
KOSPI 200	14,533	7,298	100.9	67,060	24,727	22.5	12.69	0.35
K200정보기술	1,768	853	93.1	8,637	2,881	14.4	5.84	0.12
K200경기소비재	1,720	550	47.0	8,344	2,083	16.8	13.76	0.39
K200커뮤니케이션서비스	757	164	27.7	5,650	1,448	16.4	10.11	0.28
K200에너지화학	424	238	128.4	5,333	2,416	15.1	8.81	0.31
K200금융	1,617	647	66.6	2,720	544	7.2	8.63	0.19
K200헬스케어	1,097	506	85.7	16,873	4,466	40.1	29.30	1.23
K200생활소비재	507	185	57.6	4,719	1,380	16.7	14.69	0.36
K200산업재	1,434	1,175	454.5	4,522	3,588	38.1	15.16	0.60
K200중공업	3,640	1,904	109.7	6,078	3,462	46.0	25.32	1.20
K200철강소재	636	504	380.0	910	461	12.5	8.06	0.17
K200건설	934	572	157.9	3,276	1,997	40.9	19.20	0.72

주: 1) 잔고는 5월 31일 기준. 단위는 수량의 경우 만주, 금액은 억원, 공매도, 대차잔고, 시가 총액은 모두 %

2) 증가는 4월 30일 대비, 공매도=잔고 증가 금액/공매도 금액X100(%), 대차잔고=공매도 잔고/대차 잔고X100(%)

3) 시가총액=공매도 잔고/시가 총액X100(%)

자료: KOSCOM, 한국거래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공매도 누적 상위는 LG디스플레이, HMM, 두산중공업, 셀트리온, 신풍제약

- 5월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가장 컸던 종목은 삼성전자로 6,495억원. 단, 거래대금에서 공매도가 차지한 비중은 2.17%로 K200 지수 평균을 하회. 또한, 5월 말까지 누적된 공매도 잔고는 다섯 번째로 많은 2,093억원이었지만 전월 대비로는 오히려 -130억원(-13만주) 감소. 즉, ‘회전’만 활발했던 셈인데 방향성 투기 보다는 차이거래나 롱-숏 등 중립적 투자의 부품으로 사용된 듯

- 실제로 공매도가 활발했던 종목 중에서 회전하지 않고 누적된 것은 ‘LG디스플레이 > HMM > 두산중공업 > 셀트리온 > 신풍제약’이었음. 두산중공업의 경우, 월간 공매도의 82.2%가 잔고로 누적. 이는 주가가 급등하자 매도 단가를 높이기 위해 추가 공매도가 누적된 까닭. 반대로 LG화학은 주가가 -12.1% 하락했기 때문에 공매도 중에서 잔고로 누적된 것은 19.7%에 불과

- 한편, 5월 말 공매도 잔고가 가장 큰 종목은 셀트리온으로 1조 1,225억원. 공매도 금지 이전에도 셀트리온은 부동의 잔고 1위였으며 공매도 잔고의 20%를 차지. 셀트리온은 한 달간 대차잔고가 +3,943억원 증가했고, 3,315억원의 공매도가 있었으며, 그 중에서 36.3%인 1,203억원이 잔고로 누적되었음. 거래대금에서 공매도가 차지한 비중은 8.12%였지만 주가는 +3.2% 상승

표 7. 공매도 잔고 증가 상위 20 종목(단위: 만주, 억원, %)

순위	종목명	공매도 잔고							공매도				주가 등락
		수량	증감	증가율	금액	증감	대차잔고	시가총액	수량	거래 비중	금액	잔고 증감	
1	LG디스플레이	1,238	738	147.6	2,972	1,757	25.7	3.5	1,324	16.5	3,104	56.6	-1.2
2	HMM	377	345	1,080.1	1,805	1,679	11.9	1.1	950	2.9	4,229	39.7	22.2
3	두산중공업	878	700	394.8	1,746	1,499	21.2	2.1	1,237	6.6	1,824	82.2	42.7
4	셀트리온	409	32	8.5	11,225	1,203	34.5	3.0	128	8.3	3,315	36.3	3.2
5	신풍제약	159	151	1,757.1	1,031	971	42.6	3.0	251	5.7	1,698	57.2	-7.3
6	삼성바이오로직스	26	8	48.5	2,176	782	19.1	0.4	29	4.9	2,411	32.4	5.1
7	LG화학	30	11	62.6	2,429	729	8.6	0.4	43	6.2	3,699	19.7	-12.1
8	포스코케미칼	78	50	181.4	1,130	717	21.8	1.0	98	17.0	1,434	50.0	-2.7
9	녹십자	14	13	1,204.1	485	448	21.9	1.2	23	5.6	822	54.5	0.9
10	SK바이오팜	38	37	2,948.6	432	418	22.8	0.5	63	10.8	678	61.6	4.1
11	DB하이텍	89	81	918.9	462	413	33.6	2.0	177	8.1	976	42.3	-6.7
12	동국제강	183	171	1,416.8	418	390	25.7	1.9	508	6.4	1,225	31.8	-4.4
13	넷마블	78	22	39.7	1,090	366	17.9	0.9	87	17.0	1,150	31.8	7.7
14	삼성SDI	14	6	79.6	876	357	6.6	0.2	40	6.8	2,534	14.1	-6.0
15	카카오	78	25	46.4	961	356	5.4	0.2	243	4.4	2,866	12.4	8.4
16	씨에스원드	48	46	2,432.7	366	352	36.6	1.1	90	8.1	657	53.5	-1.4
17	금호석유	17	15	1,081.5	385	348	16.5	0.5	76	5.2	1,921	18.1	-11.0
18	삼성중공업	1,671	787	89.1	1,011	348	34.1	2.7	2,008	7.4	1,257	27.7	-19.3
19	현대위아	50	38	329.4	419	338	27.9	1.8	78	7.0	596	56.7	21.3
20	두산퓨얼셀	76	72	1,713.3	335	316	23.9	1.2	189	9.5	772	40.9	-2.6

주: 1) 기간은 4월 30일 이후부터 5월 31일까지. 수량의 단위는 만주, 금액은 억원

2) 공매도 잔고 중 대차잔고는 5월 31일 기준으로 대차잔고(금액)에서 공매도 잔고(금액)이 차지한 비중, 시가 총액은 시가 총액(금액)에서 공매도 잔고(금액)가 차지한 비중

3) 공매도에서 거래 비중은 월중 해당 종목의 거래량에서 공매도가 차지한 비중, 잔고 증감은 공매도 잔고 증감(금액)이 공매도에서 차지한 비중

자료: KOSCOM, 한국거래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